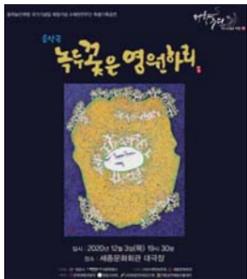


수제천보존회 음악극 내달 공연

녹두꽃은 영원하리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서
서울시민들과 정읍시민회 등 대상
민초의 삶·정신 공연으로 재조명



(사)정읍수제천보존회는 12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서울시민과 재경 전북도민회·정읍시민회 등을 대상으로 음악극 '녹두꽃은 영원하리'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전북도민회 장기철 상근부회장이 전체 시놉시스를 정리했다.

또, 정읍 출신의 박성우 시인이 대본을 완성했으며, 수제천보존회의 이금섭 예술감독이 음악 전체를 작곡했다.

특히,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저명한 시인인 신동엽, 김용택, 안도현, 도종환, 김인태, 박성우 등의 작시로 음악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수제천 연주단이 음악극 배경 연주를 맡고 조광희의 솔로 피리가 음악 전체의 선율을 이끌어간다.

정읍 출신의 원로 연극배우이자 탤런트 박근형이 나레이션을 맡아 작품의 생동감을 더하고, 연극 연출가 김창우 교수와 무용가 장태연이 창작진으로 참여한다.

또한, 테너 조창배와 소프라노 고은영, 베이스 김대영, 판소리 장지현, 전병훈 등 동서양을 아우르는 손꼽히는 음악가들의 출연으로 더욱 입체적인 음악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음악극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미술작품은 정읍 출신 이등관 화백의 작품으로 투쟁이 아닌 화합의 하모니를 표현하는 효과를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수제천보존회 관계자는 "말이나 글이 아닌 음악을 통해 동화 정신을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정읍이 그만큼 수준 높은 문화 인문 도시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4일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내 여성 경력단절 예방 우수사례 찾기

전북여성새일센터, 공모 시상식... '간호조무사, 코로나 방패 되었다' 최우수
코로나19 고용위기 속 여성고용 유지한 기업 노후우 공유하는 시간도 가져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는 24일 경력단절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도내 경력단절 극복 취업성공 여성을 비롯, 출산·육아 휴직 후 직장복귀 여성, 재직여성, 기업대표까지 다양하게 참여, 총 44개 응모자 중 7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간호조무사, 코로나 방패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가사와 육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방패로 극복한 고용유지 사례를 담은 공옥자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이영란 '코로나19 행운의 변수 비대면 플랫폼'과 '귀농후 제2의 인생으로 출세한 들깨아줌마' 사례로 공모한 임미선 씨가 받았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은 자신만의 경력관리 방법 사례를 공모한 서선희 '오늘의 경험이 경력으로 쌓여서...' 이정선 '일과 함께 성장하는 삶', 이화 '인생역전, 최선영 '엄마니까 되더라!'가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결혼과 육아로 직장의 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성공 스토리와 코로나19 고용위기 속 여성고용을 유지한 기업 노후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구직희망 여성들에게 취업성공 우수사례 전파·보급을 통한 꿈과 희망의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애 센터장은 "이번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은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 재인식은 물론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의 계기로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구직여성들이 자신감과 도전, 새로운 용기를 줄것으로 기대한다"며 "힘들게 취업한 여성이 다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개발하도록 응원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센터 홈페이지(jwcc.re.kr)나 취업지원팀 063)254-3719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행사 추진

26일 인형극 '안녕 도깨비' 기획공연

남원시는 오는 26일 오후 7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주년을 맞아 인형극 '안녕 도깨비' 기획공연을 선보인다.

안녕 도깨비는 장난끼 많고 짓궂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간절한 바램을 들어주기도 하는 인간적인 존재로서 도깨비의 원형에 대한 이야기로, 테이블인형, 분절인형, 하이브리드인형, 그림자인형 등 다양한 인형들이 꾸미는 인형극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공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120여석 한정으로 공연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당일 현장 관람은 불가능하며, 공연 전후 방역소독 실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연은 공연장 입장객이 제한된 상황에



더 많은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공연으로 다음달 4~6일, 기간 한정 남원시·남원외곽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인형극 '안녕 도깨비' 공연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말 시비 예산을 투입한 가족오페라 '미술피리' 공연을 기획,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관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주 기자

디지털 콘텐츠들 한곳에... 예스24, '스토리24' 앱 출시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한데 모은 '스토리24' 앱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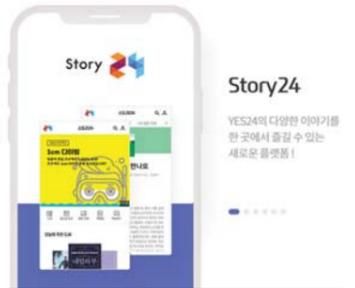
'스토리24' 앱은 예스24의 전자책, 북클럽, 웹소설, 채널예스 등의 콘텐츠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서비스다. 사용자가 콘텐츠의 생산, 소비, 공유 등 콘텐츠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참여하며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사용자 경험 기반의 전문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예스24는 전했다.

스토리24 첫 화면에서는 최신 도서, 인기, 웹소설/웹툰, 예스24의 문화웹진 채널예스/스냅, 영화 동영상 등 분야별 콘텐츠를 바로 읽어볼 수 있다.

스토리24는 스토리24가 추천, 엄선한 콘텐츠를 바로 읽어볼 수 있는 새로운 독서체험 기회를 제공해 원하는 작품을 쉽게 찾도록 돕는다. 24.1Hz는 예스24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 추천 엔진 기술이 접목된 챗봇 서비스다. 책 속의 한 문장으로 취향에 맞는 다양한 추천 도서를 만날 수 있고 좋은 글귀는 누리소통망(SNS)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

스토리24에서 구매한 콘텐츠와 예스24에서 구매한 도서까지 한 데 모아 놓는 보관함 기능도 있다. 실시간 커뮤니티 서비스 '펜살롱'은 회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스24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양



호화책 sey코인 시스템도 도입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작가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거나 경품 응모에 참여할 수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